**마0307 Note**

**도우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옛 중동에서는 글을 배우는 데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으므로 서기관은 학자이거나 관리였다. 즉 토라를 다루는 토라에 학식있는 자들을 말한다,

필경사,율법사,서기관,법률전문가등으로 불리운다,

이들의 임무는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는 뜻이다.

바리새인들은 십일조 및 결례 규정을 아주 엄격히 지켰으며, 이들은 모세의 토라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도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었다.

바리새인들은 주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 유대교 사상을 주도하고 결정하게 된다,

◆사두개인(Sadducees)

B.C. 2세기경부터 A.D. 66-70년 전쟁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했던 유대주의의 한 집단이다.

그 이름은 다윗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파멸 전에, 성전의 제사장들 계급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존중하였다.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헤롯궁이나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백성들을 지배한 것은 엄격한 금욕적 율법주의로 치장한 바리새인들이었다.

사두개인은 육신의 부활과 사후심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야적 소망' 등에 대해선 거의 관심이 없었다.

시두개인은 A.D. 66-70년 사이 전쟁 초기에 완전히 사라졌다,